

## 인문학연구원 제21차 콜로키움 개최 이주노동자의 가족 돌봄과 실천의 사례 탐색 및 논의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4월 15일(금)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 사업단의 제21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Zoom 화상회의로 접속 링크를 제공해 진행되었다.

인문학연구원 최대회(HK연구교수)의 사회로, 김경학(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를 모시고 「고려인과 네팔 이주 노동자 초국적 가족과 돌봄」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경학 교수는 인류학적 현장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네팔 이주 노동자의 초국적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 돌봄의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전 지구적인 이주로 야기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의 회복성과 탄력성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김교수는 “초국적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국경을 두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족 공동의 복지와 일체감을 지니고 가족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초국적 실천을 하고 있다.

특히 고임금을 받는 한국에서의 이주자 노동은 가족의 집단적 선택으로 가족 복지향상과 이주자 미래를 위한 일로, 한국에서의 노동이 단기간에 많은 것을

### 가족에 대한 '초국적 시각' transnational perspective

- 이주에 대한 결정이 개인 결정의 결과로 취급함으로써 이주가 가족의 생애주기에 걸쳐 일어나는 가족 집단의 전략적인 결정임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대안적 시각
- 이주는 송출국가에서 정착 국가로 향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에 평생을 걸쳐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 초국적 관계의 중요성은 교통통신수단의 혁명적 발전과 긴밀히 관련
-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와 초국적 관계의 유지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이 아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원의 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긴장감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주당사자와 남은 가족원간에 송금과 현금 소비를 둘러싼 가족 관계 강화와 긴장 및 가족 내 젠더 규범의 변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경학 교수의 발제 이후 참여자를 중심으로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정미라 교수(인문학연구원장)는 “이번 콜로키움은 국내에 이주한 고려인과 네팔의 초국적 가족이라는 현실적 사례를 통해 가족 유형, 돌봄에 있어서 노부

**콜로키움 21**

국내 고려인과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과 가족원 간의 돌봄의 실천에 대한 인류학적 현장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전 지구적인 이주로 야기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의 회복성과 탄력성을 생생하게 대에 강의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 고려인과 네팔 이주 노동자 초국적 가족과 돌봄

발표자: 김경학(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2022.4.15(금) PM 4:00-6:00**  
 전남대학교 인문대 2호관 4층 교수회의실 진행 코로나 상황에 따라 zoom 화상회의로 진행  
 사전신청메일 familycommunity@naver.com

모와 아동의 문제, 구성원 사이의 젠더 규범의 변화, 송금이라는 도덕 경제의 문제 등 돌봄과 생존을 위해 이주를 선택한 초국적 가족의 다양한 돌봄 실천 양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콜로키움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인문학연구원과 광주천주대교구청 공동모임

## 우리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2021년 12월 16일  
15:00 - 18:00  
전남대 인문대 1호관 106 이담호 강의실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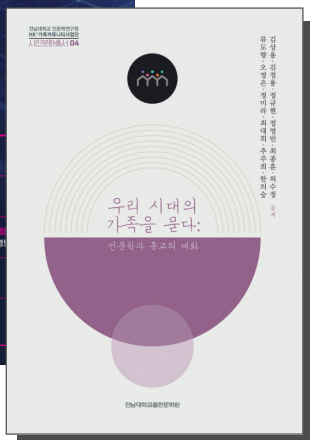
발표 1부 인문학이 바라본 한국가족의 계원과 변화  
15:00 - 16:00 한승훈, 황도환, 주주원, 최태원

발표 2부 가족의 교집합에서 가문의 의미와 가정사목의 변화  
15:10 - 16:00 정구원, 최홍훈, 김상영, 최 다모태오 수녀, 황현

발표 3부  
16:10 - 17:00

특별토론 우리시대의 가족을 묻다  
16:30 - 18:00 발표자 전원

## 시민문화총서 『우리시대의 가족을 묻다』 발간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정리, 우리시대 가족 문제 화두 담아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2021년 3월부터 천주교광주대교구와 함께 진행한 가정사목 공동 세미나를 확대, 발전시켜 지난 12월에 개최한 공동포럼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시대의 가족을 묻다-인문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제목의 시민문화총서를 발간하였다.

시민문화총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소속 교수들이 최근 가족의 변화와 시대 흐름을 문학, 사학, 철학, 통계학, 사회학의 관점에서 조망한 것이고, 2

부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사목국과 광주가톨릭대학교 소속 신부님과 수녀님을 중심으로 성경과 가톨릭 교회에서 가정의 개념을 논의하고, 가정사목의 역사와 미래 방향성을 탐색한 것이며, 3부는 본서의 필진들이 모여 대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시민문화총서는 인문학과 종교가 조우하는 낯선 그림 속에서 우리 시대 가족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해답을 찾기보단 함께 가슴을 맞대고 문제들을 고민하는 노력의 흔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커뮤니티』 5집 발간

# 가족 서사,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등 일반논문 4편과 서평 1편 수록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 사업단은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 5집을 3월 31일자로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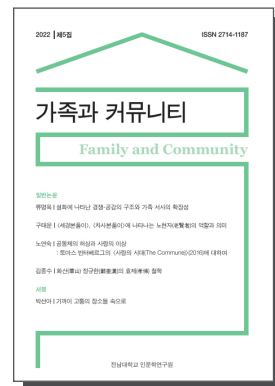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 사업단은 매년 3월, 9월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 5집에서는 일반논문 4편과 서평 1편이 실렸다.

일반논문은 고전문학 분야에서 류명옥이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이란 논문을 통해 설화 구연자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웹툰 〈바리공주〉의 사례를 통해 댓글이 설화가 현대적 방식으로 재창조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가족 서사로 재생산되는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고, 구태운은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

의 역할과 의미」란 논문을 통해 서사무가에 나타난 노현자의 이미지는 주인공의 성장을 보조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조력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한편 현대 분과에서 노연숙은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이란 논문에서 토마스 빈더베르그의 〈사랑의 시대〉를 통해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였고, 한국철학 분야에서 김종수는 〈화산 정규한의 효제 철학〉이란 논문을 통해 조선 후기 재야 유학자인 정규한이 주창한 효제 철학은 동양의 이상향인 당우 삼대의 풍속을 화산 지역에 재현하여 '천하평'의 구현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정 해체화 현상에 대한 도덕적 규범에 대한 재성찰의 계기

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사라 아메드의 『행복의 약속』에 대해 박선아 연구원의 서평이 실렸다. 박 연구원은 아메드가 정서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존재함을 주시하면서도 대체로 행복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집단에 집중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행복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삶과 재현들을 '불행 아카이브'라 명명하고 이 '불행 아카이브'를 살필 때야 행복이 신화화되어 온 사회의 기저 매커니즘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페미니스트 작업이라 정리하고 있다.



경북대 인문학술원 ×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 ‘달구벌 빛고을 인문학’ 강좌 개설

경북대 인문학술원 ×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달구벌 빛고을 인문학

경제 너머, 지역과 지역을 소통하다

2022.5.12. - 6.30. (8주)  
Thu. 19:00-21:00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5.12. 대구 인문학자 바리본 광주 인문학자 토마스 빈더베르그 교수

5.19. 대구의 228 김현주 경북대 사학과 강연교수

5.26. 대구와 문화 김광수 문화기획자

6.2. 대구와 문학 김주현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6.9. 대구와 철학 - 하기락을 중심으로 김성환 경북대 윤리교육과 강연교수

6.16. 대구의 음식 - 달구벌의 맛과 멋 이은호 영남일보 기자

6.23. 대구와 가족, 그리고 여성 윤정원 경북대 사학과 강연교수

6.30. 마무리 집중 토론 달구벌과 빛고을의 인문학자 만남(아메드) 기운 김연민 및 서민 황우 (영희대대우, 전남대대우 동시 진행)

‘달구벌 빛고을 인문학’ - ‘경제 너머, 지역과 지역을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실시될 강좌는 영호남 인문학자가 상호 교차하여 강좌를 운영할 예정으로 광주에서는 김규종 교수(경북대 노어노문학과)의 ‘대구 인문학자가 바라본 광주’란 주제를 시작으로, 김현주 강의교수(경북대 사학과)의 ‘대구의 2,28’, 최정수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와 문화’, 김주현 교수(경북대 국어국문학과)의 ‘대구와 문학’, 문성학 명예교수(경북대 윤리교육과)의 ‘대구와 철학-하기락을 중심으로’, 이준호 기자(영남일보)의 ‘대구와 음식-달구벌의 맛과 멋’, 윤정원 강의교수(경북대 사학과)의 ‘대구와 가족, 그리고 여성’, ‘달구벌과 빛고을의 인문학자 만남’이라는 마무리 집중 토론에 이르기까지 문학, 문화, 음식, 가족 등 대구를 망라하는 주제로 8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인문학센터 ‘노들뜰’은 이번 강좌를 통해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동서 갈등을 넘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영남과 호남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정신사에 대한 선이해를 통해 서로의 인문 정신의 역사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앙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지역 구도를 넘어 지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노들뜰’에서는 2022년 5월 12일-6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19:00-21:00에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달구벌 빛고을 인문학’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구원 학술동정

논문게재

- ▶ 김연민, 「노스텔지어 미학: 존 맥가현의 앵글로-아이리쉬 소설」, 『영어영문학연구』 48권 1호, 대한영어영문학회 2022.2.28.
- ▶ 김연민, 「아트 슈피겔만의 공감적 불안 마우스에 나타난 재현 윤리」, 『영어영문학21』 35권1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22.3.31.
- ▶ 김청우, 「시의 환상, 환상의 시: 불가해한 현실에 대응하는 미학으로서의 환상 -김구용 시에 나타난 환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6권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2.28.
- ▶ 추주희, 「거리에서 개입하기 : 광주지역 성매매 청소년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63권, 생명문화연구소, 2022.2.28.
- ▶ 추주희,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비판적 탐구」, 『가족과 문화』 34권 1호, 한국가족학회, 2022.3.31.

역들이 연대하여 인문자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본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영남과 호남의 인문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마당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